"일상을 예술로" 전일빌딩245, 토요 문화행사 풍성

전세대 즐기는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공감' 연중 운영

작가와 만남·가족체험·청년 공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선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심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전일빌딩245에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공감'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감'은 매주 토요일 전일빌딩 245에서 열리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공연·전시·플리마켓·체험 활동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도심 속 문화쉼터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 재조명된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받은 인문 투어를 비롯해 전일빌딩245 입주 기관과 연계한 인문 강연 '전일245 클래스',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 등 인문 중심 콘텐츠를 선보인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일245展', '내 생애 첫 전시'를 비롯해 전일빌딩245 특화 게임으로 개발된 AR게임인 'AR게임투어-명탐정 전일'이 마련돼 시민 참여도를 높인다.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는 오는 14일과 28일 두 차례 진행되며, '혼모노'의 성해나 작가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김기태 작가가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액션! 아트놀이터'에서는 나비케이크 만들기, 나만의 페라리움 만들기, 강아지 보틀 케이크 만들기, 모루로 만드는 탁상시계, 비누 속 이야기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대기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설치된 '전일뽕뽕오락실'에서는 에어바운스, 레트로 게임기, 아동용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엮는 청년 공감 프로젝트 '왓츠인마이북', 특색있는 팝업스토어를 만나볼 수 있는 북페어 '덕질상점', 전일가요제의 역사성을 이어가는 '싱어송 라이터스'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시간 및 사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전일마당 공식누리집(전일마당.com), 인스타그램(@jeonil.madang),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jeonilmad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전일빌딩245(062-233-0245)로 하면 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전일빌딩245는 광주의 역사와 시민감성을 잇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처음 쓰는 나의 이야기, '두 번째 : 이상하게 익숙한 너' 展 개최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청년작가 전시지원 프로젝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작가 전시지원 프로젝트 『처음 쓰는 나의 이야기』의 두 번째 전시로 이두환 작가의 『두 번째 이야기 : 이상하게 익숙한 너』를 제3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익숙함 속의 낯섦'이라는 감각을 자화상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냈다. 작가는 관계의 경계에서 마주하는 감정의 미묘한 흐름과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직관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정한 초상을 넘어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두환 작가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미술을 수료하고, 광주·서울·인천 등지에서 14회의 개인전과 수십 차례의 단체전 및 아트페어 참여 등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다. 장지에 채색을 혼합하는 독특한 회화 기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시선을 시각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전시장에는 총 13점의 평면 회화 작품이 전시되며, 단순한 감상을 넘어 관람객이 작가의 세계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관람객은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는 자화상 체험을 통해, 전시의 메시지를 자기화하며 더욱 깊은 몰입을 경험한다.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 '그리는 나, 그려지는 나'는 6월 14일(토) 오후 1시에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이두환 작가의 작품 해설을 들은 후, 자기의 얼굴 또는 상상 속 이미지를 미니 캔버스에 자유롭게 그리는 자화상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참여자의 이름 또는 닉네임과 함께 문화관 1층 서재 공간에 전시되며, 관람객이 창작자로 전환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관 내부 공간을 관람객 참여형 전시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체험 인증샷을 통한 SNS 공유 등 온라인 확산 효과도 기대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순천시, '원츠(Wants) 순천' 행사 일환 6월 7~8일 '디즈니 싱어롱' 개최

〈겨울왕국〉, 〈모아나〉 테마곡과 함께 '원츠 순천'에서 즐기는 디즈니 싱어롱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원츠(Wants)순천' 행사의 일환으로 남문터 광장 야외무대에서 '디즈니 싱어롱'을 진행한다.

이번 '디즈니 싱어롱'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명곡을 함께 따라 부르며 즐기는 참여형 교육 이벤트로, 문화예술회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7일, 8일 각 1회씩 진행된다.

7일은 오후 7시 〈겨울왕국〉 작품의 메인 테마곡에 맞추어 약 30분간, 8일은 오후 5시에 약 1시간 30분 동안 남문터 광장 방문객들과 〈모아나〉를 관람하며 메인 테마곡을 따라 부르며 진행된다.

행사장인 남문터 광장은 이번 '원츠 순천' 행사 기간동안 순천 대표 캐릭터와 콘텐츠로 꾸며져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이색 콘텐츠 축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디즈니 싱어롱'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며, "노래와 감동이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에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츠 순천'은 '디즈니 싱어롱' 외에도 벨리곰 펀 워킹, 벨리곰 댄스파티 & 포토타임, 신비아파트 싱어롱 쇼 등 다채로운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무형유산보존회 함께하는 〈굿이 Good이여!〉

국립남도국악원은 6월 5일 제1회 국악의 날을 맞아, 뜻깊은 기념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악 진흥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국악의 날을 기념하며, 국악의 전통을 조명하고 일상 속 실천적 가치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국악의 날인 6월 5일 오후 4시 진도무형유산전수관 마당에서 열리는 공연은 지역 전통예술인들과 함께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진도다시래기보존회, 강송대(남도잡가 보유자), 강강술래보존회와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 출연하며, 진도다시래기 중 거사놀이, 남도잡가 중 농부가, 강강술래, 판굿과 함께하는 대동놀이로 꾸며진다.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은 "처음 맞는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역 국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남도국악원은 6월 국악주간을 맞아 기념 공연 외에 국악 명상, 굿음악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찰랑찰랑 내 마음속 풍경 도자기에 담아볼까

영암도기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 단체 모집

영암도기박물관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찰랑찰랑 내 마음속 풍경소리' 참가 유아·초·중·고 단체를 9~16일 모집한다.

현재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특별기획전 '도자, 형을 빚다'와 연계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6~8월 매주 화·금요일 박물관 기획전시실 등에서 1시간 가량 외부 전문강사와 보조강사의 도움으로 도자기 형태, 조형미 등을 공부하고, 특별기획전 작품을 감상한다.

나아가 자기 감정과 사물 이미지를 도자기에 꾸미는 체험활동에 나선다.

영암도기박물관은 1회에 30명 이내로 총 4회를 운영해 120여 명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단체는 신청서·참가자명단 등을 작성해 영암도기박물관 이메일(shyakara9774@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영암 아이들이 예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다. 많은 교육기관 등 단체의 접수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